

제 14회 종교개혁기념 학술세미나

개혁신학과 목회: 베자와 도르트총회의 가르침

일시: 2019. 10. 30. 수요일 오후2시

장소: 고신대학교 손양원기념홀(비전관 4401)

사회: 이신열 개혁주의학술원장

2:00-2:15

축사 - 안민 (고신대 총장)

격려사 - 서보권 (개혁주의학술원 후원이사장, 진주북부교회 담임목사)

기도 - 정하태 (개혁주의학술원 후원이사, 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Photo time

2:15 발표1: 양신혜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주제1: “고난 중에 핀 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베자의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2:55 Break time

3:05 발표2: 정요석 박사 (세움교회, 담임목사)

주제2: 도르트 총회와 신경이 갖는 목회적 성격

3:45 논평 - 황대우 (개혁주의학술원책임연구원)

질의응답 - 객석

4:30 폐회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고난 중에 핀 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베자의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양신혜(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교회사)

I. 들어가는 말

흑사병은 중세사회의 구조를 붕괴시킨 원인이다. 14세기 의사들은 3종류의 약초를 처방하기도 했으나, 당시 사람들은 피신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생각했다. “빨리, 멀리 떠나고, 늦게 귀환하라”(cito, longe, tarde)란 표어가 유일한 처방전으로 여겨졌다.¹⁾ 하지만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병에 걸린 자들을 두고 살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떠나는 이기적 행동은 사회를 도덕적 폐허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중세의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삶 다음에 오는 삶에 대한 소망이었다. 적어도 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하나의 삶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에서 선행을 행함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흑사병으로 인해 “장례미사도 받지 못한 죽음이 도처에 널리게 되자 사람들은 기존의 죽음관을 포기하고, 죽음을 죽음 자체로, 교회의 도움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²⁾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정신적 공황상태를 경험하였다.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만연하게 되자, 이제는 죽음 자체가 일상화되고 죽음에 점차 무감각해져 갔다.³⁾

중세의 붕괴를 부른 흑사병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비켜가지 않았다. 취리히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본인이 1519년 흑사병에 걸렸다. 그는 9월경에 흑사병에 전염되어, 10월경에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Andreas)는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취리히의 인구는 약 7000명이었는데, 흑사병으로 인하여 약 25%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한다.⁴⁾ 이 경험을 토대로 그는 “역병가”(Pestlied)를 작성하였다. 칼빈도 제2차 제네바 사역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흑사병을 경험하였다: 1542년부터 1544년, 그리고 1560년. 흑사병은 목회자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당시 목회자들 중 어느 누구도 흑사병으로 영적 좌절을 경험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하는 일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칼빈은 제네바 목사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처럼 흑사병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인생의 위기이자 목회사역의 걸림돌이었다. 흑사병 자체가 때로는 종교개혁자 개인에게 회심의 계기를 주었지만, 종교개혁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의미를 찾아야 했다. 죽음을 부르는 질병이 우리에게

1) H. Mormeier, “Die Flucht vor der Pest als religiöses Problem,” ed. K. Schreiner, *Laienfrömmigkeit im späten Mittelalter. Formen, Funktionen, politisch-soziale Zusammenhänge* (München, 1992), 331-397, 332.
2) Alois M. Haas, *Todesbilder im Mittelalter. Fakten und Hinweise in der deutscher Literatur* (Darmstadt, 1989), 178.
3) C. Hegel, ed. *Chronik des Burkard Zink 1368-1468*, Bd. 4(Leipzig, 1866), 293. 166. 김병용, “중세 말엽 유럽의 흑사병과 사회적 변화,” 『대구사학』 88(2007), 8.
4) 조용석, “츠빙글리의 역병가연구,” 『장신논단』 46(2014), 118.

게 찾아 온 이유가 무엇인지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했다. 중세는 인간의 실존의 자리를 해석하는 은유로서의 병을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병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당시의 슬픔과 좌절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베자의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A Learned Treatise of the Plague, 1579)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흑사병이 어떤 병인지, 흑사병이 발발할 때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룬 지침서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좌절과 절망 앞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가 위로를 던져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흑사병에 대한 동시대의 이해를 종교개혁자 베자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흑사병과 베자

베자는 츠빙글리처럼, 흑사병을 겪으면서 개인적 회심의 경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칼빈처럼,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우선, 흑사병으로 인한 개인의 회심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난 후,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일어난 흑사병으로 인해 목회자들과의 갈등이 일으킨 신학적 문제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회심

베자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접한 건, 스승 볼마르를 통해서이다. 1534년 팜플렛 사건으로 인해 박해가 시작되자, 볼마르는 더 이상 프랑스에 머물지 못하고 다음 해에 독일 튀빙겐(Tübingen)으로 떠난다. 하지만 그는 볼마르의 빈자리에서 불링거(Bullinger, 1504-1575)를 만난다. 베자는 불링거의 논문 “거룩한 예배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오류의 기원”(De origine erroris in Divorum ac simulacrorum cultu, 1529)을 볼마르의 집에서 발견하면서 영적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베자는 이 글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 즉 성인에 대한 교리와 미사에서 벌어지는 오류를 바로 알게 되면서, 참된 경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그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대부분 1535년에 부르주의 볼마르 선생님 댁에서 읽었던 당신의 책 덕분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특히 당신이 제롬의 거짓에 대해 말한 것을 읽으면서 주님은 내 눈을 여사 진리의 빛을 응시케 하셨습니다.⁵⁾

당신은 나로 하여금 가장 순수한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참된 경건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⁶⁾

5) Beza, *Correspondence de Théodore de Bèze*. ed. Hippolyte Aubert, Henri Meylan, Alain Dufour, vol 9 (Geneva. 1960-), 121. 1568년 8월 18일 자 편지, 이하 CB로 표기한다.

6) Beza to Wolmar, March 12, 1560, CB 3, 45. Scott M. Manetsch, “Beza and the Crisis of

하지만 베자는 “기나긴 망설임”⁷⁾의 시간을 갖는다. 공적으로 신앙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께 맹세했던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에 머물면서 세상이 주는 “공허한 반짝임과 허망한 유혹”⁸⁾ 속에서 살아간다. 올바른 신앙에 대한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가톨릭에 머물고 있었던 그에게 1548년 가을,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했다. 흑사병으로 추정되는데, 이 병으로 인해 그는 죽음 앞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갈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 후 건강을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병에서 살아났다고 확신하였다.⁹⁾ 이 병을 계기로 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안정과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고자 했던 세속적 야망을 기꺼이 포기하였다.¹⁰⁾ 프랑스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종교적 자유를 찾아 제네바로 떠났다. 이런 베자를 파리고등법원은 “도망간 이단자”라고 판결을 내렸다(1549년 4월 3일). 그리고 베자의 형상을 만들어 불태움으로써 형을 집행하였다.¹¹⁾ 참된 경건을 맛보았지만, 주저하며 공개적인 신앙고백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베자가 종교개혁자로서의 길을 떠나도록 계기는 분명 흑사병에 걸렸던 그 경험이 주요했다.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당당하게 달 정도로 그는 신앙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2. 흑사병과 목회

베자가 흑사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때는 칼빈에게서 목사회의 의장직을 위임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1568-1571년에 제네바는 흑사병으로 3,000명의 시민이 죽음을 맞이했다.¹²⁾ 1571년에 베자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그는 형제 니콜라스를 잃는다. 니콜라스는 프랑스에서 흑사병을 피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제네바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에 낙망한 베자는 취리히에 있는 불링거에게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 저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와 동료들의 기도로 제가 지금 느끼는 처참함에서 벗어나 지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¹³⁾라고 편지를 쓴다.

제네바를 덮친 흑사병은 베자의 제네바 사역에서 중요한 교육사역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Reformed Protestantism,” ed. Martin I. Klauber, *The Theology of the French Reformed Churches: From Henri IV to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4), 26.

7) Manetsch, “Beza and the Crisis of Reformed Protestantism,” 26.

8) Beza, *CB* 10, 89.

9) M. A. van den Berg, *Friends of Calvin*, (Grand Rapids: Eerdmann, 2009), 242-43.

10) Berg, *Friends of Calvin*, 242-43.

11) Berg, *Friends of Calvin*, 244. 프랑스 파리의 고등법원은 베자에 대한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베자는 “베자는 이단자 루터의 사상을 받았들었다. 둘째, 자신의 성직록을 팔았다. 제네바로 도망하였다.” 1550년 3월 31일 파리 고등법원은 베자의 전 재산을 몰수하였다. 모베르 광장에서 화형에 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564년 4월 1일 샤를 9세의 사면령으로 그의 사형판결과 재산 몰수가 취소된 다음에야 그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

12) Scott Manetsch, 신호섭 옮김, 『칼빈의 목사회회의 활동과 역사』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538.

13) Shawn D. Wright, *Theodore Beza The Man and the Myth* (Glasgow, Christian Focus, 2015) 167.

휴교하게 만들었다. 이때 제네바 아카데미에 등록된 학생이 겨우 4명이었기 때문에, 시의회는 베자를 제외하고 모든 교수들을 면직해야만 했다. 베자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면직된 교수들을 위해서 시의회를 찾아가 그들을 대변했다. 이외에 베자는 흑사병으로 제네바의 목사회와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1570년에 흑사병이 발발하자 시의회는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일에서 베자를 제외시켜 달라고 목사회에 부탁하였다. 하지만 제네바 목회자들이 이에 항의하였다. 사실, 제네바 목사들의 항의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1564년과 1567년에도, 시의회가 병원을 방문하며 돌보아야 목회자의 직무에서 베자를 면제 시킨 것에 이의를 제기했었다.¹⁴⁾ 시의회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제네바 교회의 중직을 담당한 베자를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베자는 시의회를 설득하여, 스스로 흑사병 환자들을 방문하여 돌보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는 목회자라고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심지어 1574년에는 흑사병으로 마을 전체가 죽음에 빠지게 되자, 목회자 피에르 데 프레오가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일까지 벌여졌다.¹⁵⁾ 어떻게 목사가 흑사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두고 목회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가? 베자는 흑사병 희생자들을 위한 돌봄의 규정을 만들어 목회자의 임무와 사명의 자리를 재고하여 어떻게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¹⁶⁾

베자는 당시 전염병으로 치료제를 찾지 못하는 병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위기 앞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베자는 우선, 흑사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였다. 적어도 베자에게 흑사병은 육체적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둘째, 베자에게 흑사병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오는데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다. 흑사병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되는 경험들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셋째, 베자는 흑사병으로 인하여 유발된 목회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한 인간으로 느끼는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다.

III.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A Learned Treatize of the Plague, 1579)

베자는 흑사병으로 인한 목회적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고자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A Learned Treatize of the Plague, 1579)을 출판한다.¹⁷⁾ 그가 이 글을 쓰게 한 직접적인

14) Manetsch, 『칼빈의 목사회의』, 539.

15) 이 시기에 제네바 목사회는 “흑사병의 희생자들이 공포에 질린 가족이나 이웃의 공격을 받거나 버림을 당한 거의 12건에 가까운 사건을 중재”하였다고 한다. 말발 마을의 중산계급의 가족이야기는 당시 흑사병으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타락은 충격적이기도 하다. 1571년 9월에 이 가족의 한 딸이 임신 말기에 흑사병에 감염되었다. 그러나 감염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이 젊은 여인을 버렸다. 심지어 분만의 고통이 이 감염된 여인을 엄습했을 때, 가족이나 이웃의 그 누구도 이 절망에 휩싸인 여인의 도움에 반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 가련한 여인은 물과 도움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혼자 아이를 분만해야 했다. 하지만 산모와 아이는 아기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죽고 말았다. Manetsch, 『칼빈의 목사회의』, 407.

16) Manetsch, 『칼빈의 목사회의』, 540.

17) 베자는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에서 두 주제를 다룬다. 첫째, 흑사병의 원인에 대한 의구심이다. 자연 발생적 수단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전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섭리의 결과인지를 주요 논제로 다룬다. 흑사병으로 인해 신앙의

계기는 아아르베르크(Aarberg)에 있는 개혁교회 목사의 잘못된 논리에 대하여 답변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크레스토프 뤼타르트(Christoph Lüthard)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흑사병을 보냈기 때문에 도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차적 원인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였고, 흑사병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흑사병을 피해 도망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¹⁸⁾ 흑사병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중세적 이해에 대한 신학적 답변이 실제적으로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고민해야 할 실천적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예를 들어, 목사가 흑사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인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위한 목사의 의무가 자신의 영적 양떼를 향한 책무를 대신하는 것인가? 자기 보존을 위해 병든 자기 교구민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흑사병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실존적 문제이자 공동체 윤리의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실천적 지침서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1. 윤리적 행위를 위한 양심

1)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책무

베자는 흑사병이 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¹⁹⁾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가족을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한다.²⁰⁾ 베자는 흑사병이라는 위급 상황에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의 주체임을 자각해야 하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 사람은 우선, 서로 다양한 끈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있다. 성장하면서 가족을 넘어서 이웃의 관계로, 동료의 관계로 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서로 얽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인간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다. 둘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얽혀있는 다양한 끈은 그 '관계'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강도에 따라서 떠날지, 아니면 머무를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양심적 판단에서 주요한 척도로서 작용한다. 다양한 관계의 끈 중에서 가족으로 이루어진 끈이 다른 어떤 관계의 끈보다 강하다. 그 이유는 가족의 끈은 인간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닌 천부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의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의 끈에는 책임이 주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의 관계를 통해서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 임무에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 사회 구성원들

삶 자체가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는 신앙인들에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된 것으로, 흑사병이 발발할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흑사병이 발발한 지역을 떠나야 하는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신앙의 부족한 결과인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위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룬다.

18) Manetsch, 『칼빈의 목사회의회』, 541.

19)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

20)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

에게 이 보이지 않는 잠재적 끈이 가진 강도는 동일하거나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자의 관심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을 판단을 주요 척도로 삼는다.

인간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구성원의 관계를 형성하는 끈의 강도에 따라서, 각자 개인이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다. 이 관계의 수가 다양하고, 그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미 언급했듯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천부적인 혈연관계가 어느 관계보다 강하다. 베자도 이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베자는 공동체의 붕괴를 낳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혈연공동체보다 국가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우선하여 선택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공동체가 국가이며, 국가 공동체의 붕괴는 가족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베자에게 있어서 국가 공동체는 최고 위정자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적인 개인들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이다.²¹⁾ 이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각자의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여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적 임무를 맡은 위정자들은 국가 관료로서 흑사병이 발발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며, 전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전염병이 더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연히 병든 환자들을 돌보는 책임이 부여된다. 국가의 위정자로서 관료들이 가져야 할 역할은 두 가지로, 전염의 원인을 찾아서 막아야하고, 또한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 병에 걸린 자와 건강한 자의 관계에서 건강한 자가 병에 걸린 자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병에 걸린 자들도 건강한 자의 책무를 고려해야 하며, 무조건적 사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자들이 환자가 되어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베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에 따라서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세운다.

2)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

베자는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연결된 책무의 관계에서 윤리적 행위를 설명하였다. 공동체의 책무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부름과 행위의 관계를 이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과 행위의 관계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의 자리인 믿음에 대한 이해와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다. 베자는 우선, 믿음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사건에 대한 확고한 동의(a firm assent)로 설명한다.²²⁾ 여기에서 베자는 동의를 단순한 지적인 앎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마치 실제로 그것을 소유한 것과 같은 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그리스도를 앎(apprehension), 그와의 접붙임(ingrafting), 그리스도와와의 연합(incorporation)과 교제(fellowship with Christ)로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문107.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악의 치료책으로 믿음을 이제 다루어봅시다. 이해, 접붙임, 그리스

21) 베자는 이와 관련하여 파리에서 벌어진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에 대한 응답으로 저술한 “신학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2) Beza, *A Little Book of Christian Questions and Response In which the principal headings of the Christian Religion are briefly set forth* (Eugene, Oregon: Pickwick, 2009), 81문.

도와의 연합,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 본체들 자체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자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는 자들은 어떤 환각적인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 땅의 용어로 말한다면 영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판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효과로, 우리는 그렇게 그에게 참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해지기까지 분명한 확증에 충분하게 이르게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워야 할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의 자비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이것-즉,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이 *아버지의 자유로운 선물로* 주셔서 나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즐겁게 교제로 그것을 나눌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²³⁾

믿음은 말씀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107문에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실존론적 관계에서 믿음을 설명한다. 이 관계는 믿음을 “악의 치료책”로 정의하는데서 더욱 분명해진다. 베자는 92-106문에 걸쳐서 전적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고 난 후, 다시 악의 치료책으로서의 믿음의 4단계를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존재론적 변화에서 베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접붙이고 연합하여 교제하는 자로의 변화를 실존적 의지의 단계에서 다룬다. 이 연합은 “영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이자,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효과”로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심연에서 찾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분이 드러내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일어난다.²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증이 일어난다.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의 자비로 우리의 것”이 된 “자유로운 선물”임을 깨닫고 경험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론적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주요한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뿐이다.

베자는 죄인의 상태에서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도록 가르친 후, 『질문과 응답』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예정의 결과임을 고백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구원과 탁월한 영광”을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정하셨음을 알게 된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선택교리를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유일한 토대이자 근거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효과들은 쓸모없어질 것이다.”²⁵⁾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이 이 땅에서 부르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믿음의 결과로서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존재론적 변화가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임을 유추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을 이끄는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실제적 사건이며, 이 경험을 통해서 예정에 대한 초자연적 인식으로 나아가는 동력이다. 여기에서 “신비롭고 영적인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작정으로 올라가는 초자연적 방법을 통한 논증을 시도한다.

23) Beza, *A Little Book of Christian Questions and Response In which the principal headings of the Christian Religion are briefly set forth* (Eugene, Oregon: Pickwick, 2009), 40.

24) 퍼킨스, 김지훈 옮김, “예정에 대하여 유혹을 받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특별한 논의,” 『황금사슬』 (용인: 킹덤박스, 2017), 462.

25) Beza, *The Christian Faith*, 4.19.

둘째, 베자가 표현한 “악의 치료책”으로서의 믿음의 특성은, 이미 그가 신앙고백서에서 복음을 약으로 비유한 것과 맞물려 있다. “약사가 병에 적절한 약을 처방하듯이,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수단과 도구를 만들어낸다.”²⁶⁾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론적 전이를 이룬 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가르치는 처방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권위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을 매개로 순종의 대상이 아버지로부터 남편에게도 이양된 것과 같다.²⁷⁾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의 단계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선, 내 안에서 시작된 성화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즉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이 그 표지입니다. 여기에 나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증거, 나의 양심의 위로로 덧붙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성화와 영의 위로로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올라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는 영원 전에 선택되었으며 결코 구원의 문에서 거절되지 않을 것입니다.²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화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진 예정에 대한 믿음의 표지이다.

그러므로 베자는 흑사병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 즉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하도록 권면한다. 흑사병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발발한 전염병이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좌절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베자는 분명하게 당시의 동시대인들과 함께 흑사병의 발병의 주요 원인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한다.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 이 병을 내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목회자들은 병의 원인에 대하여 논쟁하기 보다는 어떻게 죄를 인식하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²⁹⁾ 손을 쓸 여력도 없이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은 인간의 나약함과 언약함을 인식하게 하며, 그 자리에서 세상의 덧없음을 넘어서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종말에 있을 심판대에서 완성된 영생을 확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 위로의 중심에 선택이 있으며 선택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작정의 결과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영적 싸움에서 양심이 믿음의 진리와 관련하여 흔들린다 할지라도, 영혼은 육체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결코 성령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선물인 양자의 영을 후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³⁰⁾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판단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 척도이

26) Beza, tran. Philip C. Holtrop, *Sum of All Chritianity, or the Descrip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auses of Salvation of the Elect and the Destruction of the Reprobate, Collected from the Sacred Writings, in The Potter and Caly: The Main Predestination Writings of Theodore Beza* (Grand Rapids: Calvin College, 1982), 274-75.

27) Beza, *Question and Response*, A 108: 40-1.

28) Beza, *Question and Response*, A 209: 96-7.

29)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9.

30) Beza, *Questiones and Responses*, A 212: 98.

다.

3) 양심의 윤리적 판단과 행위

베자는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윤리적 판단과 행위와 관련된 주요 주제를 다룬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름의 자리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흑사병이 발발했을 때, 바로 흑사병이 발발한 곳을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를 어떤 척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베자는 실제적인 윤리적 판단에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전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흑사병을 보냈는지를 숙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이 땅만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이며, 이 땅에서 삶을 넘어서 죽음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전제 아래서 베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의 척도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판단을 위한 척도로서 삼아 당시에 제기된 의문에 답변을 시도한다. 당시 예수가 가르치는 이웃 사랑을 진심으로 지키는 자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여, 흑사병이 돌 때 마을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아픈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마을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자이며, 이 땅에서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반대하여 베자는 우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서 멀어지기를 원한 반면,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증거 구절로 제시한다.³¹⁾ 성경의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분명 상반된다.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로마서에서의 고백은 거짓이 된다. 그래서 베자는 바울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의 행위에 자체가 아닌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그리고 좋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복종했는지에 판단의 근거를 두었다.³²⁾ 베자에게 있어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외적으로 나타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양심의 확신이다. 베자는 윤리적 척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가르친 이웃의 사랑은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방법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행위의 주체가 어떤 마음에서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베자에게 있어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윤리적 판단을 할 때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주요한 판단 척도로 삼았다. 이는 칼빈의 원칙을 계승한 원칙이다.³³⁾ 베자는 여기에서 흑사병과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시켜 나간다. 베자는 이 땅

31) 바울을 이 긴장을 또한 증명한다. “그는 그의 목숨을 기다리는 자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기를 가이사에게 원한다(행 25:11). 그리고 (3) 마지막 예는 사울, 압살롬, 그리고 죽음 그자체로부터 도망하는 다윗에서 본다. 이에 베자는 죽음을 피해 도망하는 자가 누구든지 급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말아야 한다. 반대로 죽음을 원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32)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3.

33)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모름지기, 그 동일한 뜻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바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힘써 나가감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뜻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리 저리 처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새겨야 하는 것이다. 칼빈, 『기독교강요』, 1.17.5.

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사유하고 판단해야만 하는지를 질문한다. 흑사병이 발발했을 때, 마을을 떠나라는 구절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마을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하여, 베자는 세 가지를 반대 논리를 제시한다. 첫째, 성경은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둘째, 성경적인 특별한 명령이 없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셋째, 성경은 흑사병에 대한 모든 예를 기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반응을 기록하지 않는다.³⁴⁾ 베자는 성경에 모든 일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든 사례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성경이 전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 일어날 때,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라고 가르친다. 이는 『질문과 응답』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일반은총으로서의 이성을 다루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베자는 인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성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이성을 토대를 둔 확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성경에서 일반적 규칙을 유추하는 과정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곧 성경해석의 문제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흑사병이 발발한 지역을 떠나는 자들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다. 하지만 베자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예수의 율법인 이웃사랑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흑사병이 발발한 지역을 떠나려는 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예수의 계명인 이웃 사랑의 원칙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고 권면한다.³⁵⁾ 성경해석에 있어서 베자는 그리스도의 실제적 이익을 위해서 성경의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윤리를 따라서 판단하도록 권고한다. 흑사병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판단을 위한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명령, 즉 이웃 사랑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 우선시한다. 이 명령을 절대적 원칙으로 삼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처한 상황은 다양하나 이웃 사랑이라는 대전제는 동일하다. 여기에서 이성으로서의 사유와 양심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베자는 당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그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변증하였다. 베자는 인간은 죽음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며 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에서 그 예를 제시하여 변증한다: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야곱, 압살롬을 피해 도망한 다윗을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³⁶⁾ 베자는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의 삶을 비유를 들어 이들을 비난 할 만큼 선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한다.³⁷⁾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만들어졌으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논증하였다.

정리하면, 베자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적 판단에 따른 윤리적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의 절대성을 전제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마을을 떠나는 것은 명백한 죄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랑의 계명을 어기

34)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5.

35)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7.

36)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3-14.

37)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3-14.

는 행위이며 자신의 임무와 소명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떠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베자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윤리적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 척도이다. 이 전제에서 우선, 그리스도인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이때 그리스도인 각자 안에 있는 이기적 욕망의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에 분별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둘째,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와 공동체의 임무가 겹쳐 있을 때는 당연히 공동체가 부여한 임무를 우선시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의 나라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진 빚을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 ... 사랑은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³⁸⁾ 인간의 이기적 감정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임무를 우선시하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공동체를 떠날 것인지, 머무를 것인지를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윤리적 판단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관계로 인해 복잡하다.³⁹⁾ 그렇기 때문에 흑사병이 퍼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외적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론적 변이는 성화의 삶에서 윤리적 행위가 변화의 표지로서 나타나야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도와 그 결과로서의 행위에 대한 온전한 윤리적 판단은 그리스도인의 의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도로 그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의도와 그 결과로서 행위가 일치하기 보다는 같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로서 그리스도인 각자는 성경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⁴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론적 변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에서 선택한 자들에게 객관적 판단의 척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에게 최상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움직이던 교만과 지나친 자만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주시는 선한 소망을 붙잡고 확신과 용기를 갖고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선한 행위가 흘러나오게 된다.⁴¹⁾

2.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흑사병

베자뿐만 아니라 동시대인들은 동일하게 흑사병의 발발 원인을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다.⁴²⁾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서 악을 어떻게 다스리시지를 주요 논제로 부각시켰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실재에서 벗어나 도망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리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해

38)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7-18.

39)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1-12.

40) 베자는 신앙고백서에서 “기도와 이웃 사랑”을 언급한다. Beza, *The Christian Faith*, 4.15.

41) Beza, *The Christian Faith*, 4.15.

42) Beza, *Treatize of the Plague*, 2.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이해가 근대이후의 제기된 문제와 거리를 둔다. 오늘의 변증학에서 다루는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성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질문과 맞닿아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1.16.3 참조. 바로 이 지점에서 칼빈은 허용의 개념을 사용한다.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든, 두려움으로 도망을 하여 살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일들은 실재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반영이며 고통스러운 죽음이후에 마주할 영원의 실재다. 그리스도인이 뒤돌아 다시 상대할 할 분은 흑사병 뒤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흑사병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한다. 베자도 흑사병을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동시대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 영원한 작정을 바라보아야 한다.⁴³⁾

하나님의 별로서의 흑사병에 대한 이해에서 당시 논쟁점으로 제기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전능과 주권에 대한 전적 수용 여부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이다. 우선, 흑사병의 발발도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병을 피해 피난하는 것은 그의 전능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 노력을 거부한다. 이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에, 심지어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 버린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정해 놓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행자이다. 이에 베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지 않고 그의 영원한 섭리가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상의 적법한 수단을 제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명백한 예(행 27:24, 31)에서 보는 것처럼 삶의 연장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고 끝내는 것과 관련하여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 아직 우리에게 숨겨져 있을 때,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보기 드물다.⁴⁴⁾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신다. 이는 그가 예정론을 다루면서 내세운 주요 논지이다. 하나님의 영원 전에 세운 목적을 이 땅에서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발발한 지역을 떠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불순종한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느냐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여 경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야 한다. 이 일을 게을러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베자의 반론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흑사병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이라는 주장에 대항하여 병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한다. 베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흑사병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는다. 흑사병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보낸 목적과 관련한 것이지, 병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다. 우리에게 벌을 주어 우리의 죄를 깨달아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위선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흑사병을

43) 베자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서술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도 도구로 사용하신다. 욕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이해한다. 『기독교강요』 1.18.1.

44)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2.

보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벗어나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이는 칼빈이 『기독교강요』 1.17.1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⁴⁵⁾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서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베자는 『질문과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두신 목적은 “그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증함으로써 영광을 받기 위해서”(2문)라고 가르친다.⁴⁶⁾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구원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낸 목적에 합당하게 서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앞에서 전술한 것처럼, 구원의 자리에서의 인도로, 죄인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나아감이기에, 인간의 행위의 윤리적 판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올바르게 악에 대항하여 그 자리에 있는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내린 흑사병 그 자체는 선악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로 흑사병을 보내신 목적은 인간을 병으로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자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를 바라보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항하여 그 치료책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흑사병은 “자연발생적이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베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로서 명확하다: 인간은 죽음 이후의 구원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자연발생적 원인을 통해서도 이루신다.⁴⁷⁾

베자는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개념을 구분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그의 손길을 통해서 이룬다는 대명제를 두고, 이 작정을 이루는 방법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와 개념화시킨다. 그것이 이차원인(secondary cause)이다.⁴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차적 원인을 사용하신다. 이차 원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한다.⁴⁹⁾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를 일깨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치료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당시 적대자들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에 아무런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되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모순에 빠진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일이니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먹고 마시는 일조차 하지 말자는 논리를 내세우게 되기 때문이다. 분명 죽음의 권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과 아담으로부터 나타나기에 인간 모두는 죽는다. 그렇다고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가야 하는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구하거나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니 그렇기 해서는 안 되는가?⁵⁰⁾ 분명

45) “우리가 비참한 중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죄악들이 마음에 떠올라야하며, 그런 처지를 징벌로 여겨서 회개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은밀하신 계획이 단순히 각자에게 정당한 징벌을 베푸시는 것보다 더 폭이 넓은 정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1.17.1

46) Beza, *Questions and Responses*, A.2: 5.

47) Beza, *Treatise of the Plague*, 3.

48) 하나님의 작정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제2원인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나도록 영원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합당한 수단들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제2원인에 있어서 악한 어떤 것이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The Christian Faith*, 3.5.

49) Beza, *Treatise of the Plague*, 4.

50) Beza, *Treatise of the Plague*, 4.

그렇지 않다. 베자는 이를 분명하게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차적 원인을 통해 병에서 벗어날 치료책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논증한다.

하나님께서 인간 각자가 직면하게 되는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흑사병을 사용하신다. 여기에서 베자의 종말론적 세계관이 빛을 발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망하든지, 머물러 있든지 간에, 미래의 판단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예상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분노의 소식으로서의 흑사병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를 소환해야만 한다. 그 자리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막대기는 장소를 변경시킬 수 없으나 방식은 가능하다. 인간 모두는 심판대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내보여야 하며, 그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서 심판의 자리에 설 때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베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변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라면 착한 행실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당위론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자리이자 임무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차적 원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병에 걸린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을 더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만약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없는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베자는 경고한다.⁵¹⁾

베자의 주요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차원인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이다. 여기에 어떤 방식 하나를 고착화시켜 사유를 전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흑사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날 자를 택하셨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를 약속하셨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베자는 이 양립가능성을 성경의 예, 즉 파라오를 섬기는 요셉의 행동, 파선하는 배에서의 바울의 행위 등을 들어 논증한다.⁵²⁾ 여기에서 주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 법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베자의 반대자들이 놓치는 가장 큰 오류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열매를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목적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각자가 처한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며 영생을 상고하도록 하신다. 이 목적을 수행하고자 이차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이차수단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한다. 칼빈이 『기독교강요』 4.17.1에서 예수의 뼈를 비유로 들어 구분한 두 개념인 ‘결과의 필연’과 ‘결과적 필연’을 그대로 수용하여 설명한다. 인성을 지닌 예수의 뼈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러져야 한다. 하지만 예수의 뼈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다면, 인간의 경험과 논리에 따르면 부러져야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이다.

51) Beza, *Treatize of the Plague*, 4.

52) (1) 이집트의 파라오를 섬기는 동안 요셉의 행동, (2) 아가보스의 예언 (3) 앗시리아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 (4) 파선하는 배에서의 바울의 대응 (5) 예수님의 겹세마네에서의 기도, Beza, *Treatize of the Plague*, 9-10.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우리의 인성을 지닌 바로 그때로부터 죽을 몸을 견뎌야 한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다른 아들과 같이 학살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학살당하지 않았고 그 몸의 본성을 고려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헤롯에 의해서 학살당하신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때 그는 틀림없이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런 몸이었다. 그의 자연적 죽음을 고려한다면, 그는 우연히 죽음을 맞이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라본다면, 그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자발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작정에 불쾌한 우연이자 의지이다.⁵³⁾

베자는 흑사병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는 살아남고, 어느 누구는 흑사병이 창궐한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직접 경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흑사병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며, 오히려 흑사병은 전염에 의해서 확산되는 병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시편 91장 6절과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자연적 원인과 그 결과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래서 흑사병에 걸렸음에도 살아나거나,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과 접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울이 짐승에게 물렸어도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뱀의 독이 치명적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행 28:5)⁵⁴⁾ 성경과 경험, 모두 역병의 전염성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또한 자연적으로 전염되는 병임을 암시한다.

흑사병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발병하지 않는다.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부당한 일들을 당하였을 때 고통을 더하고 복수심을 자극하는 사악함에 매몰되어, 그것에만 반응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수들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며, 그의 의로운 섭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를 사용하신다. 이 두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한 일을 올바르게 이루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욕망을 허용하신다. 하나님의 허용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난 병 자체는 선과 악의 판단에서 중립성을 띠게 되며,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에 저항하며 사느냐에 달렸다. 그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주는 위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 시험을 견뎌야한다.

IV. 나오는 말

베자에게 흑사병은 개인적 체험을 넘어서 공동체의 붕괴를 낳는 고난이자 그의 신앙을 시험하는 계기였다. 그는 흑사병일 것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죽음의 목전에서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 죽음의 목전에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하였다. 흑사병은 그에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도록 이끈 하나님의 섭리였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라는 꽃을 허락하

53)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0-11.

54) Beza, *Treatize of the Plague*, 11.

였다. 그리고 베자는 흑사병으로 인해 제네바 아카데미가 붕괴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윤리의 해체를 경험하였다. 고난과 시험의 자리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좌절과 고민에 대한 답과 더불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결단을 내리는 척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베자는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으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양심의 평화를 주고자 하였다. 흑사병이라는, 이성을 넘어서 발발한 전염병 앞에서 영적 무기력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권면하고자 하였다.

베자는 첫 번째로, 믿음은 영원 전 하나님이 예정한 초자연적 초대이며 악과 싸우는 성화의 출발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의 자리는 영원으로 확장된 삶의 자리이자 양심의 결단을 연 첫 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표지를 죄를 미워하는 항거와 하나님의 사랑에 두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은 악에 대항하는 자리에 서있어야 함을 뜻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목적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다. 흑사병이라는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의무와 책무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베자는 실천적 목회자이다. 흑사병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제기된 양심의 윤리적 판단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하나하나 답한다. 그는 흔들리는 양심에 변하지 않는 객관적 척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구한다. 성경을 척도로 삼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명확하게 이웃사랑이다. 베자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절대적 원칙으로 삼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복잡하기 때문에 실천적 적용을 위한 해석의 틀로서 일반적이며 보편적 원칙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권한다.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주요한 척도로 “양심의 평안”과 “악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제시한다. 성경에서 얻는 원칙과 기준을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신다.

마지막으로, 베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그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는 방식에 주목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차원인을 통해서 그가 세운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때로는 사랑의 징표로, 때로는 분노의 증표로 나타내신다. 그 나타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하시고, 진노의 징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도록 한다. 이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일들은 “고유하게 그리고 본성적 차원에서”(porprie et naturaliter)⁵⁵⁾ 은밀하게 그 목적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겸손하게 우주의 창조자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구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 베자는 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끌어들이어 하나님의 섭리를 서술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칼빈의 전기』이다. 베자는 하나님께서 칼빈의 사역에서 어떻게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의 생애를 서술한다. 이는 그의 프랑스 개혁교회의 역사 서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을 고난

55) CO 39: 588.

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인내의 동력이며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감을 보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참고문헌

- 김병용. “중세 말엽 유럽의 흑사병과 사회적 변화.” 『대구사학』 88(2007): 159-82.
- 조용석. “츠빙글리의 역병가 연구.” 『장신논단』 46(2014): 115-35.
- Berg, M. A. van den. tran. Reinder Bruinsma. *Friends of Calvin*. Grand Rapids: W. D. Eedmans, 2009.
- Beza, Theodore. tran. Kirk M. Summers. *A Little Book of Christian Questions and Responses*. Eugene, Oregon: Pickwick, 2009.
- _____. tran. James Clark. *The Christian Faith*.
- _____. tran. Philp C. Holtrop. *Sum of All Christianity, or the Descrip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auses of Salvation of the Elect and the Destruction of the Reprobate, Collected from the Sacred Writings*. in *The Potter and Clay: The Main Predestination Writings of Theodore Beza*. Grand Rapids: Calvin College, 1982.
- _____. *Correspondence de Théodore de Bèze*. ed. Hippolyte Aubert, Henri Meylan, Alain Dufour. Geneva. 1960-.
- _____. trans. John Stockwood. *A Shorte Learned and Pithie Treatize of the Plague*. London: Thomas Dawson, 1580.
- Haas, Alois M. *Todesbilder im Mittelalter Fakten und Hinweise in der deutscher Literatur*. Darmstadt, 1989.
- Hegel, C. *Chronik des Burkard Zink 1368-1468*. Leipzig, 1866.
- Manetsch, Scott. M. 신호섭 옮김. 『칼빈의 제네바목사회의 활동과 역사』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_____. “Beza and the Crisis of Reformed Protestantism.” ed. Martin I. Klauber. *The Theology of the French Reformed Churches: From Henri IV to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4: 24-56.
- Perkins, William. 김지훈 옮김. 『황금사실: 신학의 개요』 용인: 킹덤북스, 2016.
- Wright, Shawn D. *Theodore Beza The Man and the Myth*. Glasgow: Christian Focus, 2015.

도르트 총회와 신경이 갖는 목회적 성격

정요석(세움교회, 담임목사)

1. 들어가며¹⁾

네덜란드의 개혁 교회는 1571년에 독일의 엠덴에서 전국 대회(National Synod)²⁾를 열고 사역자들은 벨직 신앙고백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1581년의 미델부르크 대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년)에도 사역자들이 서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야콥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60-1609)와 그의 추종자들은 벨직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고 특히 몇 조항들은 성경에 위배되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것들에 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아르미니우스가 1609년 10월에 죽자, 그의 영향을 받은 43명의 목사들은 1610년에 5가지 항목을 문서로 내놓았다. 이 문서는 기존의 교리에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항론서”(抗論書, Remonstrance)로 불렸고, 이들은 항론파로 불렸다. 반항론파는 항론서에 맞서 “반항론파서”(The Counter-Remonstrance)를 7가지 항목으로 내놓았다. 이들 간의 논쟁이 치열해지자 네덜란드 의회는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도르트에서 총회를 열고 정통 가르침이 무엇이고, 항론파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 도르트 신경(Canones Synodi Dordrechtanæ)의 작성을 통해 드러내었다.

도르트 총회는 신학자들과 학문성이 있는 목사들을 초청하여 신학의 첨예한 논쟁을 신학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목적에 맞게 작성된 도르트 신경은 아무래도 신학적이고 학문적이다. 이 논문은 첫째로 도르트 총회의 진행 방식을 살펴보고, 둘째로 도르트 신경이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면이 있지만 목회적 관점에서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기술되었음을 살펴본다. 셋째로 도르트 신경이 다른 신앙고백들과 비교할 때 사용된 단어들과 문장들이 아니라 전개된 논리에서 대중적이고 보편적임을 살펴본다. 넷째로 도르트 신경을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하나의 방식을 본인의 목회 경험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다섯째로 도르트 총회의 목회적 측면을 살펴본다.

2. 도르트 총회의 진행 방식³⁾

모든 총회 진행 비용을 지불한 네덜란드 의회가 초청장을 항론파의 내용과 함께 1618년 6월부터 지방 노회들과 여러 나라들에 보냈다. 9개의 지역 노회들은 각 6명씩, 총 35명의 목사와 18명의 장로를 보냈다. 화란의 5개 대학들은 1명씩 5명의 신학자를, 의회는 18명을 보냈다. 영국, 팔츠, 헤센, 스위스, 나사우-베테라우, 제네바, 브레멘(Bremen), 엠덴(Emden)에서 26명의 대표자들을 보냈다.⁴⁾ 도르트 총회는 8개국에서 대표들을 보내 개혁주의 교회에서 유일하게 준(準) 세계 총회의 성

1) 이 논문의 “2. 도르트 총회의 진행 방식”은 본인이 저술한 다음 책을 크게 참고하였다. 정요석, 『전적 부패, 전적 은혜 : 도르트 신경의 역사적 배경과 해설』 (수원: 영음사, 2018), 27-45.

2) 이 논문은 “Synod”를 한 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모였을 경우에는 “대회”로 번역하고, 전국 교회들이 모인 “National Synod”이면 “총회”나 “전국 대회”로 번역한다. 1618년의 “National Synod of Dordt”는 전국 대회에 속하므로, 도르트 총회로 번역한다.

3) 이곳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쉐더후이스의 글을 크게 참조하였다. Herman J. Selderhuis, “Introduction to the Synod of Dordt (1618-1619),” in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and Herman Selderhuis eds., *Acta of the Synod of Dordt* (Bristol: Vandenhoeck & Ruprecht, 2015), xx-xxx.

4) 항론파까지 포함한 참석자들의 이름과 지역과 신분은 다음의 책에 상세히 나오니 참고하라. Peter Y. De Jong eds., *Crisis in the Reformed Churches* (Essays in commemoration of the great Synod of Dort, 1618-1619) (Grand Rapids: Reformed Fellowship, Inc., 1968), 215-21. 이 책보다 더 상세하게 각 총회에 관한 설명을 원하면 다음 책을 참고하라. 이 책에는 소환된 항론파의 출석자에 대해서도 나온다. 마키다 요시카즈, 이종전 역, 『도르트 총회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다』 (인천: 아벨서원, 2019).

격을 갖는다.

11월 14일에 보헤르만(Johannes Bogerman)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초청이라기보다 소환을 받은 항론파들은 12월 6일에 13명이, 10일에는 2명이 도착하였다. 총회는 이들이 회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자, 문서로 그들의 입장을 살피기 위해 이들에게 기존의 항론편서에 대한 자세한 견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2월 13일(제31차 회의)에 첫 번째 조항에 대하여, 17일(제34차 회의)에 다른 세 가지 조항들에 관하여 “항론파들의 견해”(Sententia Remonstrantium)를 제출하였다.

도르트 총회에는 10곳의 지역 노회들, 8개국의 외국 대표단들, 1개의 교수 대표단 등 총 19개의 모임(collegium)들이 있었다. 총대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모임을 열고 결정문(judicia)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했고, 다음 날 전체가 모여 19개의 결정문을 들었다. 말하는 순서는 앞은 좌석 순이었다. 공식 언어는 외국 대표들 때문에 라틴어였다. 19개의 결정문의 취합 후 전체 결정문을 만들었는데, 채택 여부는 개인별이 아닌 단체별로 행한 투표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각 항목에 대한 각 단체의 결정을 조합하여 최종 결정으로 만든 것이 도르트 신경이고, 그래서 도르트 신경의 공식 명칭은 “도르트에서 1618년과 1619년에 열렸던 화란 개혁 교회의 국가 총회가 영국, 독일, 프랑스의 개혁 교회의 많은 뛰어난 신학자들과 함께 화란 교회에서 논쟁이 된 다섯 가지 교리 조항들에 대하여 내린 결정”이다.

1월 15일부터 각 모임은 결정문을 작성했고, 3월 7~21일에 결정문들이 낭독되었다. 3월 25일부터 4월 16일에 9명의 신경 작성 위원회는 초안을 작성했고, 각 단체는 초안을 읽은 후 수정사항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된 후, 4월 16~18일에 신경이 전체 회의에서 승인되었고, 4월 23일에 모든 회원들은 각 장에 서명했다. 5월 6일에 모든 대표들과 국내외의 손님들까지 전체 회의에 모여 두 명의 서기가 신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들었다. 외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 회의는 제154차로 5월 9일에 끝났다. 5월 13일에 재개된 회의는 화란어로 교회 질서(church order) 등을 논의하였다. 도르트 총회는 제180차로 5월 29일에 끝났다.

3. 도르트 신경의 서술 방식

①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서술 방식

각 지역의 모임은 각 교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논의한 결정문을 만들었는데, 모임마다 서술 방식에 특성이 있었다. 어떤 곳들은 먼저 정통 교리를 상세하게 기술했고, 어떤 곳들은 먼저 항론파의 견해를 상세하게 비판했고, 어떤 곳들은 정통과 이단 교리를 병행시키며 대조했다. 그런데 모든 모임들은 스콜라적인 서술 방식과 용어를 사용했다. 항론편서와 항론파들의 견해와 총회의 각 모임의 결정문이 스콜라적인 서술 방식과 용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도르트 신경도 그렇게 작성되기가 쉬웠다.

그런데 도르트 신경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popular and catholic)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팔츠 모임은 첫째 교리에 대한 결정문을 스콜라적인 방식으로 7쪽 분량으로 작성한 후에, “예정 교리를 대중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란 제목으로 2쪽 분량을 더 작성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대중적으로 열매 있게 가르치기 위한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도입문으로 시작한 후에 “대중은 가르쳐져야 한다”라는 제목 하에서 선택에 관하여 11항목, 유기에 대하여 4항목을 기술하였다.⁵⁾ 이 2쪽 분량에서 사용된 용어와 주제와 서술 방식이 실제로 도르트 신경의 제1장과 비슷하다. 첫째 교리에 대한 팔츠 대표들의 서술 방식에 감명을 받은 전체 총대들은 다

5) W. Robert Godfrey, “Popular and Catholic: The Modus Docendi of the Canons of Dort,” 246: “*Modus Docendi populariter doctrinam de Praedestinatione*” (“The manner of teaching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popularly”). 246: “... ministers of the Word of God ought to be prepared with a plan (ratio) for teaching this doctrine popularly and fruitfully.” 247: “*Docendus est populus*” (“The people ought to be taught”). 244-253을 참조하라.

른 네 교리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기술하기로 결정하였다.⁶⁾ 도르트 신경의 각 장은 먼저 해당 교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이어서 항론파의 오류와 이에 대한 반박을 서술한다. 도르트 신경은 항론파의 잘못만을 드러내지 않고, 성경에 따른 정통 교리가 무엇인지 온전한 논리를 통해 이해하도록 긍정적 명제들을 먼저 기술했는데, 팔츠 대표들의 영향이 컸다.

② 각 교리들 간에 중복되는 내용

도르트 신경의 각 장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네 개의 교리의 각 항을 요약한 아래 표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러한 중복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독자들이 각 장을 읽을 때 다른 장들을 읽지 않고도 논리의 흐름을 온전히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⁸⁾ 이런 배려도 도르트 신경이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읽히는 데 일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1. 신적 선택과 유기	2.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로 인한 구속	3. 사람의 타락, 하나님께 회개와 그 방식	4. 성도의 견인
1	죄에 빠진 인류 롬 3:19, 23, 6:23	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타락	죄와 싸우는 중생자
2	구원을 마련 요일 4:9, 요 3:16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의 공의	부패한 본성의 전달	중생자의 죄와 겸손
3	복음 전파자의 파송 롬 10:14-15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전적 부패	성도의 견인
4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방식	신인양성의 일인격	희미한 본성의 빛	유혹되는 신자들
5	불신과 믿음의 원인 엡 2:8, 빌 1:29	복음의 약속의 선포	율법의 역할과 한계	중생자의 심각한 죄
6	선택과 유기 of 작성 행 15:18, 엡 1:11	불신앙의 원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죄를 짓지 않는 신자
7	선택 및 구원의 수단 엡 1:4-6, 롬 8:30	믿음의 원인	복음이 신약에 더 전해지는 이유	사망의 죄를 짓지 않는 신자의 회복
8	하나의 같은 선택	제한 속죄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신자 보존
9	선택의 결과물인 믿음 엡 1:4	완수될 하나님의 계획	비(非)회심의 원인 마 13장	구원과 견인의 확신
10	선택의 유일한 원인 롬 9:11-13, 행 13:48		회심의 원인	확신의 발생 방식 롬 8:16-17
11	실패 없는 선택		하나님의 회심의 방법	가끔 흔들리는 확신 고전 10:13
12	선택의 확신		초월적으로 중생된 의지의 자체성	견인의 확신의 유익
13	선택의 확신의 유익		다 이해할 수 없는 중생	되살아나 견인의 신뢰

6) John Hales, *Golden Remains of the Ever Memorables Mr. John Hales*, Second Impression (London: Newcomb, 1673), 123. 존 헤일즈는 도르트 총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는데, 본인이 모은 소식을 당시 네덜란드에서 영국 대사로 근무하였던 Dudley Carlton에게 편지를 썼다. 헤일즈는 도르트 총회에서 행해진 설교문들과 함께 이 편지들을 모아 위의 책을 작성하였다.

7) 이 표는 다음에서 인용했다. 정요석, 『전적 부패, 전적 은혜 : 도르트 신경의 역사적 배경과 해설』, 356.

8) W. Robert Godfrey, "Popular and Catholic: The Modus Docendi of the Canons of Dort," 253.

			의 방식	의 효과
14	선택 교리의 선포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복음과 성례의 사용
15	유기의 작성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	신자와 비신자의 견인에 대한 다른 태도
16	유기에 대한 자세들	둘째 교리 논박 1. 요 10:15, 27, 사 53:10 2. 히 9:15,17 4. 롬 3:24-25 5. 엡 2:3 7. 갈 2:20, 롬 8:33-34, 요 10:15, 15:12-13	영적으로 살아난 의지와 그 효과	넷째 교리 논박 1. 롬 11:7, 8:32-35 2. 고전 1:8 3. 롬 5:8-9, 요일 3:9, 요 10:28-29 4. 요일 5:16-18 5. 롬 8:39, 요일 3:24 6. 요일 3:2-3 7. 마 13:20, 눅 8:13 8. 벵전 1:23 9. 눅 22:32, 요 17:11, 15, 20
17	유아의 선택과 구원		중생의 사역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18	선택과 유기의 자세 롬 9:20, 마 20:15, 롬 11:33-36			
	첫째 교리 논박 1. 요17:6, 행13:48, 엡1:4 2. 롬 8:30 3. 딤후 1:9 4. 엡 2:3-9 5. 롬 9:11, 행 13:48, 엡 1:4, 요 15:16, 롬 11:6, 요일 4:10 6. 마 24:24, 요 6:39, 롬 8:30 7. 눅 10:20, 롬 8:33 8. 마13:11, 11:25-26 9. 신10:14-15, 마11:21	셋째 교리 논박 1. 롬 5:12, 16, 6:23 2. 엡 4:24 3. 렘 17:9, 엡 2:3 4. 엡 2:1, 5, 창 6:5, 시 51:19, 마 5:6 5. 시 147:19-20, 행 14:16, 16:6-7 6. 렘 31:33, 사 44:3, 롬 5:5, 렘 31:18 7. 겔 36:26 8. 엡 1:19, 벵후 1:3 9. 롬 9:16, 고전 4:7, 빌 2:13		

③ 각 교리에 대한 정의적 진술

각 장이 교리에 대한 정의(定義)적 진술을 갖는 것도 도르트 신경이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란 평을 듣는 이유에 속한다. 갓프리(Godfrey)에 의하면, 제1장은 제7항이 선택에 대한, 그리고 제15항이 유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이다. 제2장은 제8항이 제한 속죄에 대한, 제3장은 제3항이 전적 부패에 대한, 그리고 제6항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제4장은 제3항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이다.⁹⁾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전적 부패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진술은 이에 대한 정의를 온전히 담고 있지 않다.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진술도 “불가항력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각 장은 다루는 교리에 대한 정의적 진술을 근접하게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선택 : 제1장 제7항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의 목적인데, 이에 따라 하나님은 세상의 창립 이전에 처음의 순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죄와 멸망으로 빠져 들어간 전 인류 종족으로부터, 그분의 뜻의 자유로운 선한 기쁨에 따라, 순전히 은혜로, 더 옳아서도 아니고 더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이들과 같은 비참함에 빠진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영원 전에 모든 피택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받도록 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의 말씀과 영을 통하여 교통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이끄시기를,

9) W. Robert Godfrey, “Popular and Catholic: The Modus Docendi of the Canons of Dort,” 253.

참된 그 믿음을 주시기를, 칭의하실 것을, 성화하실 것을, 권능 있게 자신의 아들과의 교통 속에서 보존하실 것을, 마침내 영화하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자신의 자비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신적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이다.¹⁰⁾

제한 속죄 : 제2장 제8항 그의 아들의 가장 귀한 죽음으로 말미암은 살리고 구원하는 효력이 모든 피택자들 안에서 발휘되어, 오직 그들에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실패 없이 인도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로운 계획과 가장 은혜로운 뜻과 목적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 족속, 나라, 방언으로부터 영원 전에 구원으로 택함을 받고, 아버지께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들을 그리고 오직 이들만을 (새 언약을 확증한) 십자가의 피를 통해 효력 있게 구속하시고, (성령의 다른 구원하는 선물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그의 죽음으로 획득하신) 믿음을 주시고,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믿은 후나 전에 지은 죄이든, 모든 죄로부터,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끝까지 내내 신실하게 보존하시고, 최종적으로 모든 티와 흠 없이 자신 앞에 영광으로 세우시는 것을 원하신다.

전적 부패 : 제3장 제3항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 속에서 잉태되고, 진노의 자녀들로 태어나고, 구원하는 모든 선에 적합하지 않고, 악에 기울어져 있고, 죄에 있어 죽고, 죄의 노예이다. 그리고 성령의 중생의 은혜 없이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부패한 본성을 고치려거나, 자신들을 개혁에 내어놓으려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 제3장 제6항 그러므로 본성의 빛도 율법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이나 화해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하신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에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성도의 견인 : 제4장 제3항 이 남아있는 내재하는 죄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회심되어진 자들은 그들 자신의 힘에 맡겨진다면 이 은혜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어, 한 번 주어진 은혜 속에서 그들을 자비롭게 확증하시고, 내내 끝까지 강력하게 보존하신다.

④ 도르트 신경의 “결론” 부분

도르트 신경은 서문, 네 장으로 구성된 다섯 개의 교리, 그리고 결론으로 되어있다. A4 용지로 1장 반 분량의 결론은 반이 넘게 예정 교리의 오해를 다룬다. 여기저기서 들은 비방과 문맥에 맞지 않는 인용으로 개혁 교회들을 판단하지 말고, 개혁 교회들의 공적 신앙 고백과 정통 교리에 근거하여 판단해달라고 부탁한다. 400년 전에도 존재하여 개혁 교회를 성가시게 한 예정 교리의 오해들은 아래와 같다.

- 예정과 그와 연관된 것들에 대한 개혁 교회들의 교리들은 고유한 특성과 성향을 인하여 모든 경건과 종교성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벗어나게 한다.
- 이것은 육신과 사탄의 아편이고, 사탄의 성채인데 사탄은 이곳에서 모든 이들을 매복하여 있다가, 매우 많은 이들을 손상시키고, 다수를 절망과 안전감의 창으로 치명적으로 뚫어버린다.
- 이것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 불의한 자, 폭군,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고, 새로워진 스토아

10) 이 논문에 나오는 항론서, 반항론서, 항론파들의 견해, 도르트 신경은 본인이 라틴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을 보려면 본인이 2019년에 저술한 다음 책을 참고하라. 정요석, 『칼뱅주의 5대교리 완전정복』 (서울: 세움북스, 2019).

- 주의, 마니교, 방종주의, 터키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 이것은 사람들을 육적인 안전감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택자들의 구원은 어떻게 살든 손상 받지 않고, 피택자들은 가장 잔인한 죄를 안전하게 저지를 수 있고, 유기자들은 성도의 모든 행위를 진심으로 수행하여도 구원에 유용하지 않다고 설득하기 때문이다.
 -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순전히 임의의 뜻으로, 죄를 전혀 고려하시거나 바라보시지 않고, 세상의 큰 부분을 영원한 저주로 예정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 같은 방식으로, 선택은 믿음과 선행의 근원과 원인이고, 유기는 불신과 불경건의 원인이 된다.
 - 신자들의 죄 없는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낳아채져, 지옥으로 강압적으로 던져진다. 그래서 세레나 그들의 세레 때에 교회가 한 기도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회는 예정 교리에 대한 오해를 일일이 나열함으로써 총회가 예정 교리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이들을 깊이 살피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총회는 이런 오해가 있음에도 예정 교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결론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로, 학교와 교회에서 이 교리들을 다룰 것을 부탁한다. 예정 교리가 죽은 신앙고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회에서 실제로 가르쳐져,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란 것이다.

둘째로, 이 교리를 다룰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삶의 경건과 고통에 빠진 자들의 위로를 구할 것을 부탁한다. 예정 교리는 본래 의미와 목적을 망각한 채 논리 싸움에 빠질 수 있고, 극단적 논리의 연장으로 흐를 수 있다. 예정 교리는 현학적인 논쟁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삶의 경건과 고통에 빠진 자들의 위로를 실천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로, 성경과 함께 믿음의 유추를 따라 생각하고 말할 것을 부탁한다. 예정 교리는 인본적 합리성이 아니라, 피조물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며 오직 성경이란 외적인식원리와 믿음이란 내적인식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성경과 믿음으로 예정 교리를 바라보면 일반 성도도 충분히 예정 교리를 다룰 수 있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규정한 범주를 넘어서고, 뻔뻔스러운 궤변가들에게 개혁 교회의 교리를 조롱하거나 중상할 수 있는 정당한 구실을 제공하는 모든 표현들을 자제할 것을 부탁한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거나,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들거나, 선교와 경건과 기도에 힘쓸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의 표현을 할 수 있다. 성경에 적합하지 않은 작은 표현의 차이로 뻔뻔스러운 궤변가들에게 개혁 교회의 교리를 조롱하거나 중상할 수 있는 정당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은 교리 진술과 비교하면 참으로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총대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4. 도르트 신경은 정말 대중적이고 보편적인가?

우리는 위에서 총대들이 도르트 신경을 목회적 관점을 갖고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기술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말로 도르트 신경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난이도일까? 위에서 인용한 첫째 교리 “선택”의 제1장 제7항을 다른 신앙고백서들의 선택 교리와 비교해보자.

- ① 1561년의 벨직 신앙고백 제16조 영원한 선택 :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우리의 첫 부모의 죄에 의하여 멸망과 파멸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즉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음을 믿는다. 자비하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계획으로, 순전히 선함에 의거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전혀 보지 않으시며,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다.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을 타락과 멸망에 몰아넣은 다른 이들을 그대로 두신다는 것이다.

② 1610년의 항론서 제1조항 :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며 불변한 작정에 의해, 세상의 창립 이전에, 타락한 죄 속에 있는 인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아들을 믿을 자들이고,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바로 그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인할 자들이다. 한편, 완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죄와 진노 아래에 두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자들로 정죄하시기로 정하셨다.

③ 1611년의 반항론서

- a. 제1조항: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로 타락하였는데 너무나 부패하여, 모든 사람들은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돌이키게 할 힘과 그리스도를 믿을 힘이 없는데, 시체가 죽은 자들로부터 자신을 일으키는 힘보다 더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의 사람들을 이 저주로부터 이끄시고 구해내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계획 속에서, 순전히 은혜로, 자신의 뜻의 선한 기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택하신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공의로움 심판 속에서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 속에 그대로 두신다.
- b. 제3조항: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에서 자신의 피택자들의¹¹⁾ 믿음이나 회심 여부를 그리고 자신의 은사들을 올바른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선택의 근거들로 보시지 않았다. 대신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계획 속에서 믿음을 그리고 경건에 머무는 견인을 주시기로 목적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자신이 선한 기쁨에 따라 구원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목적하셨고 작정하셨다.

④ 1618년의 항론파의 견해 제5조항 :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전 세상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도록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칭의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에 도달할 필요하고 충분한 수단들을 자신의 지혜와 공의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제공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작정에 의하여 중보자 그리스도를 피택자들에게만 주시기로 그리고 효력 있는 부름을 통하여 그들에게만 믿음을 주시기로, 그들만을 칭의하시기로, 믿음 속에서 보존하시기로,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결코 결정하지 않았다.

⑤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작정

- a. 제5항 : 하나님께서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목적과 자신의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한 기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는데, 순전히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신 것이지, 어떤 믿음이나 선행이나 견인이나 피조물의 다른 어떤 것을 조건이나 원인으로 미리 보셔서 이것들이 하나님으로 선택하시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11) 피택자들이란 “the elect”란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다.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 b. 제6항 :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광으로 정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의 영원하며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 거기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하여진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후에,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고,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에 대한 믿음으로 효과 있게 불리어지고, 그의 권능에 의해 믿음을 통해 구원으로 칭의되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보존된다. 택하여진 자들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고, 효과 있게 부름을 받고, 칭의되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구원되지 못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도르트 신경이 다른 신앙고백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쉽지 않다. 오히려 서로 간에 사용한 단어들과 문장들에 공통점이 많다. 선택에 대한 논쟁점이 뚜렷하므로 공통된 단어들과 문장들이 사용된다. 도르트 신경은 오히려 어렵기도 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제6항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광으로 정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의 영원하며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 거기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친절한 설명 후에 그 수단들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도르트 신경은 제1장 제7항에서 아무 설명 없이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받도록 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의 말씀과 영을 통하여 교통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이끄시기를, 참된 그 믿음을 주시기를, 칭의하실 것을, 성화하실 것을, 권능 있게 자신의 아들과의 교통 속에서 보존하실 것을, 마침내 영화하실 것을 작정하셨는데”라고 기술하는데, 이 기술이 구원의 수단임을 일반 성도가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신학자들이나 학문적인 목사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도르트 신경은 단어들과 문장의 난이도에 있어서 결코 다른 신앙고백서들과 비교할 때 더 대중적이거나 더 보편적이지 않다.

별직 신앙고백, 항론서, 반항론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은 선택 교리를 보통 대여섯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조항으로 기술한다. 이에 비하여 항론파의 견해는 아래와 같이 “선택의 작정”을 총 10개항으로 기술한다. 항론파는 10개항에서 자신들의 견해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충분히 기술한다. 그리고 도르트 신경 또한 선택과 유기를 총 18항으로 기술하고, 이어서 항론파의 견해에 대하여 9가지 면에서 반박한다. 이것은 항론파의 10개항보다 더 자세하다.

“예정의 작정”에 대한 항론파의 견해

- 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작정 이전에, 앞선 순종이나 불순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긍휼과 공의의 영광이나 혹은 자신의 절대적 능력과 지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시고, 다른 자들을 영생에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 ② 각 사람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으로 의도된 작정이 아니기 때문에, 피택자들과 유기자들을 효력 있게, 필연적으로 그들의 최종적 목적지로 이끄는 그 같은 작정에 예속된 수단들은 없다.
- ③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순결의 상태에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타락과 타락의 허용을 정하신 것도 아니고, 아담에게서 필요하고 충분한 은혜를 거두신 것도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들이 외적으로 불리어지도록 하시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어 이것이 수단이 되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유익을 다른 자들로부터 제거하시는 것도 아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선택의 실행자이실 뿐만 아니라 같은 선택의 작정의 근거이시기도 하다. 어떤 자들이 효력 있게 불리고, 칭의 되고, 믿음에서 인내하고, 영화되는 이유는 그들이 영생으로 절대적으로 택하여졌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자들이 타락 속에서 머물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들이 전혀 불리지 못하고, 강박해지고, 저주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영생에서 절대적으로 유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 ④ 하나님은 타락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생한 실제의 죄와 상관없이 구원의 모든 소망에서 제외되도록 작정하시지 않았다.
- 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전 세상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도록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칭의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에 도달할 필요하고 충분한 수단들을 자신의 지혜와 공의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제공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작정에 의하여 중보자 그리스도를 피택자들에게만 주시기로 그리고 효력 있는 부름을 통하여 그들에게만 믿음을 주시기로, 그들만을 칭의하시기로, 믿음 속에서 보존하시기로,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결코 결정하시지 않았다.
- ⑥ 어느 누구도 앞선 절대적 작정에 의하여 영생으로부터도, 그리고 영생을 위한 적합한 수단들로부터도 거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부르심, 그리고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모든 자들을 위한 구원에 유익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이 이런 은사들을 남용하여 자신들을 멸망으로 돌리지 않는 한 참으로 유익하다. 어느 누구도 저주의 수단과 원인이 되는 불신앙과 불경건과 죄로 예정되지 않는다.
- ⑦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선택은 선택에 미리 요구되는 조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견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믿음과 참된 믿음의 견인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⑧ 영생으로부터의 거절은 앞선 불신앙과 불신앙의 견인을 고려하여 만들어지지, 앞선 불신앙과 불신앙의 견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⑨ 신자들의 모든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므로, 이성의 사용 이전에 이 생애를 떠난 자녀들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격으로 실제의 죄를 짓기 전인 유아 때 생애를 떠난 신자들의 자녀들이 유기자들의 숫자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 결과 세례의 거룩한 씻음이나 그들을 위한 교회의 기도가 그들의 구원에 어떤 방식으로든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 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자녀들은 유아의 상태로 살고 있을 때에 절대적 작정에 의하여 유기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항론파의 견해 10개항과 도르트 신경의 18개항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개수의 차이에 있지 않고, 논리 전개에 차이가 있다. 항론파의 견해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선택 교리에 대하여 주로 선택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언급한다면, 도르트 신경은 일반 성도가 선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선택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다루는 제1장은 사람의 죄와 저주로 시작한다. 이어서 그런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영생을 준비하셨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전파자를 보내셨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한다. 이것을 믿지 않는 원인은 사람에게 있고, 믿는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에겐 믿음을 주시고, 일부에겐 주시지 않는 영원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논리를 이어간다. 순전히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선택을 이루시는 구원의 수단도 정하셨고,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순종과 거룩함은 선택의 원인과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목적과 결과이고, 선택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선택은 방해나 변경이 있을 수 없고, 신자들은 이러한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을 열매의 관찰을 통해 얻으며 겸손과 찬양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어서 유기를 다루고, 유아의 구원을 은혜언약의 효력에 의하여 설명하고, 신자들이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로 끝을 맺는다.

다른 네 개의 교리에 대한 진술도 위와 대동소이하다. 각 교리는 해당 교리를 잘 설명하기 위하여 논리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것은 도르트 신경이 독자에게 해당 교리를 정의적 진술로 바로 제시하지 않고, 해당 교리가 왜 필요한지 “서론-본론-결론”이라는 논리의 흐름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면에서 도르트 신경은 대중적이고 보편적이지, 사용하는 단어들과 문장들의 난이도에서 대중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다.

네 개의 교리들은 사람의 타락을 앞부분에서 강조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나타낸다.¹²⁾ 제4장은 죄로부터 전적으로 구원되지 않는 중생자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생자를 구원의 상태로 견인함을 나타낸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언급하며 독자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논리 구조이다.

도르트 신경은 각 장의 마지막 항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각 교리를 불평과 의심과 공격으로 대하지만, 참된 신자들은 겸손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가해(不可解)하신 분으로 사람이 다 알 수 없으므로, 사람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유한은 무한을 다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이다.¹³⁾ 교리를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르트 신경은 단순히 교리만 나열하지 않고 성도의 경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인다.

네 개의 교리들에서 또 중복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 구원을 마련하셨다는(1장 2항, 2장 2항, 3장 6항, 4장 2항)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전파자를 통하여 전하신다는(1장 3항, 2장 5항, 3장 6항과 8항, 4장 14항) 것이다. 특히 제3장 제17항과 제4장 제14항은 복음과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마련하신 것과 복음 전파자를 보내신 것과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란 은혜의 수단을 시행하신 것을 도르트 신경이 강조함을 나타낸다. 도르트 신경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며 5대 교리를 언급하므로, 예정은 신자를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항론파의 비난은 틀린 것이다. 도르트 신경의 이런 논리 흐름을 아는 목회자는 복음의 선포와 은혜의 수단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이해 없이 도르트 신경을 단순히 칼뱅주의 5대 교리로 이해하는 것은 도르트 신경의 목회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낙엽과 열매가 떨어진 앙상한 나무만을 전하는 것과 같다.

도르트 신경은 또 불신과 믿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1장 5항, 2장 6항과 7항, 3장 10항(회심의 원인), 4장 10항(확신의 원인)에서 공통적으로 다룬다. 이것은 불신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만,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있음을 뜻한다. 도르트 신경은 사람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거하기 위하여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할 것을 강조하는 논리인 것이다.

5. 도르트 신경을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가르치기

50대 중반인 본인은 1999년 4월 11일에 합신 교단의 남서울노회에서 교회 설립 허락을 받아, 4월 24일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서초교회 설립예배를 드렸다. 설립 때부터 교리 설교를 해왔고, 오후 2시에는 교리를 공부하였다. 서초교회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140평의 땅에 교회당을

12) 이것은 물론 도르트 신경이 전택설이 아니라 후택설의 입장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타락을 먼저 기술한 면도 있다.

1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서문(1~2문), 사람의 죄와 비참(3~11문), 사람의 구속(12~85문), 하나님께 감사(86~129문)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르트 신경도 사람의 죄와 비참--> 사람의 구속--> 하나님께 감사라는 논리를 명시적은 아니지만 기본적 흐름에서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도르트 신경의 각 장을 보면 전체적 흐름과 구조가 쉽게 파악된다.

지어 2009년 2월 15일에 세움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어 이사하여 지금에 이른다.

본인은 목회를 하며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¹⁴⁾ 받았는데,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며 부족한 점을 느꼈기 때문이다. 학위 취득 후에는 외래교수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교리에 관한 몇 권의 책도 저술하였다.¹⁵⁾ 주일날 교회에서 교리에 관하여 꾸준히 설교하였고, 2018년에는 7월 1일부터 총 19회에 걸쳐 도르트 신경의 5대 교리를 설교하였다.¹⁶⁾ 이런 경험에 근거하여 어떻게 도르트 신경을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교리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의 필요성

본인은 교회 설립을 한 1999년부터 교리 설교를 했고, 주일 오후에는 칼뱅주의 5대교리와 같은 내용을 공부하였다.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 대신에 성도들과 함께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었다. 이렇게 몇 달간 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교리를 많이 알게 되어 좋다고 했을까? 상당수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느낌보다 공부하러 온다는 느낌을 가졌다. 본인은 이것을 통해 교회는 절대로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설교는 강의가 되어서는 안 됨을 깨달았다.

교회 개척 초기부터 꾸준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르치니 사오 년에 걸쳐 3번 반복하여 가르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은 본인이었다. 처음 가르칠 때는 신앙고백의 각 문장을 겨우 이해하여 가르쳤지만, 3번 가르치고 나니 왜 이런 단어와 문장이 사용되었는지 조직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동시에 교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진 만물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

일부의 목사들은 자신들이 교리 설교를 잘 하는데 성도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어려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목사가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설명을 어렵게하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도 몇 년 간에 걸친 공부를 통해서야 본인이 얕은 수준이었음을 깨달았다. 본인은 그나마 몇 년 후에도 깨달았지만, 목회 내내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다. 전달의 쉬움과 재미 그리고 삶의 적용은 무엇보다 교리 이해의 깊이에 달려 있다.

② 교리 설교와 교리 강의의 구분

본인이 교리 설교를 하며 범한 잘못들 중 하나는 설교와 강의를 구분하지 못해 설교를 강의처럼 한 것이다. 대부분의 설교에는 기승전결의 흐름이 있다. 성도들은 절정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다. 기승전결의 깔끔한 전개로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력한 한 방(?)이 설교 중에 있으면 성도들은 감동을 받는다. 이에 반하여 강의는 특별한 절정 부분 없이 내내 지식이 전달된다. 교리 설교와 강의는 이 면에서 구분이 된다. 교리 설교를 교리 강의처럼 하면 청중은 지식을 설교 시간 내내 지성적으로 전달받지만, 그렇다고 하여 감동과 은혜가 큰 것은 아니다.

성도들은 교리 설교 시간 내내 정신을 집중하여 이성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이성의 집중은 힘들어진다. 특히 설교가 신학적인 논리의 전개로 이어지면 성도의 집중도와 충성도가 대폭 약해진다. 따라서 교리 설교는 교리 한두 개를 택하여 기승전결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교리에 적합한 성경 본문을 택하여, 성경을 주해하면서 교리를 끌어낸다

14) 석사 학위의 제목은 “순교자 저스틴을 통해서 본 친구약의 관계”이고, 박사 학위의 제목은 “삼위일체 관점에서 본 조나단 에드워즈의 언약론”이다.

15)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6개월 간격으로 『소요리문답, 삶을 읽다』 상하권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삶을 읽다』 상하권을 새물결플러스를 통해 출간하였다. 책 제목이 말해주듯 교리를 삶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리를 통해 삶을 이해하도록 집필 방향을 잡았다. 합신 교단의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에서 도르트 총회 40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의 저자로 본인을 선정하여, 2018년 7월에는 『전적 부패, 전적 은혜: 도르트 신경의 역사적 배경과 해설』을 영음사를 통해 출간하였다. 올해 7월에는 『칼뱅주의 5대 교리 완전정복』을 세움북스를 통하여 출간하였다.

16) 도르트 신경에 관한 좋은 설교를 참고하려면 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의 설교집을 보라. 코르넬리스 프롱크, 황준호 역, 『도르트 신조 강해』(서울: 그책의사람들, 2012).

면 더 좋다. 한 번의 설교에 너무 많은 교리들을 전달하면 지식의 나열과 논리의 연속이 되기 쉽다. 몇 백 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에 나오는 각 교리가 현재에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갖는지 풍성하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회자는 자칫 신학 지식이 많은 성도에 맞추어 설교 수준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 설교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회는 만인이 오는 교회이어야 하지, 교리와 개혁주의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동회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개혁교회는 높은 학력자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 회원이 한쪽의 특성으로만 채워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은혜 받는 것을 자칫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습득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교리 설교는 자칫 성도들을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판단자로 만들 수 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틀린 것을 인내하며 고쳐나가는 수용성과 조정력이 약할 수 있다. 머리가 커져 발로 뛰고 섬기는 실천력이 약하기도 하다. 목사의 단점과 실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냉철하게 비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리 설교는 성도들을 외형적 지식으로 이끌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력과 실천력으로 이끌어야 한다.

③ 교리의 전달 방법: 추상성과 구체성

본인은 신앙고백서의 교리를 접할 때마다 수학의 냄새를 느끼곤 한다. 교리는 수학처럼 압축된 단어들로 절제되어 표현된다. 사용된 단어들의 뜻과 개념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교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해하기 힘들다. 교리는 앞에 나온 교리를 전제하여 그 내용이 펼쳐지므로, 앞에 나온 교리도 알아야 한다. 많은 수학 포기자들이 수학의 추상성을 인하여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또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듯, 많은 신자들은 교리가 갖는 추상적 표현을 인하여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놓쳐버린다.

교리의 추상성은 삶과 역사와 자연 등을 통하여 구체성 있게 표현되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면 수학은 원을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이해하려면 “점, 거리, 자취”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참 공부하는 중고생과 수학 전공자는 이 정의를 이해할지 모르지만,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먼저 컴퍼스의 두 다리로 원을 그리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면, 원의 정의를 많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리도 수학의 정의와 정리처럼 꼭 필요한 단어들로만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추상과 논리로 설명하면 안 되고, 성경 구절과 구체적인 삶으로 설명해야 좋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차가운 논리로 설명하지 않고, 발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머리카락을 들어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5-7장만 살펴봐도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 등불,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라, 티와 들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 등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셨다.¹⁷⁾ 예수님은 추상적 교리를 구체적 삶의 언어로 쉽고 각인되게 설명하신 것이다.

④ 어떻게 추상성을 구체성으로 표현할 것인가?

a. 적절한 성경 구절의 채택

위에 있는 표는 도르트 신경의 각 항목이 인용한 성경구절들을 나타낸다. 도르트 신경은 긍정적

17) 이런 내용을 더 알고 싶으면 다음 책을 참고하라. Warren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 이장우 역, 『상상이 담긴 설교: 마음의 화랑에 말씀을 그려라!』 (서울: 요단출판사, 2005).

서술 부분에서 제1장을 제외하고 다른 세 장들은 성경구절들을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논박 부분은 4개의 장들이 모두 성경구절들을 많이 인용하였다. 이것은 항론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성경을 직접 인용하여 논박하였다는 것이고, 그만큼 항론파의 잘못이 성경의 특정 구절들을 통하여 쉽게 반박된다는 것이다.

도르트 신경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에 표의 성경구절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성경이 인용되지 않은 항목은 다른 신앙고백서나 조직신학 책을 참고하면 된다. 조직신학 책에는 교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까지 있는데 설교자는 성경 본문 주석을 통하여 이 설명을 성도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

b. 교리 전달의 한 방법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설교자의 서재-창조적 설교를 위한 세속적 책 읽기』에서 “위대한 작가들은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으며, 일단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법도 알고 있다.”라고¹⁸⁾ 말한다. 그는 설교자가 단편 소설의 구도를 통하여 설교 구도를 잘 잡을 수 있다며 단편 소설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설교자는 성경책만 아니라 창조적 설교를 위해서 세속적 책을 다양하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본인은 단편 소설과 명작 만화를 통하여 설교 구도와 글쓰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

본인은 추상성과 구체성이란 개념을 3년 전에 읽은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에서¹⁹⁾ 배웠다. 이 책은 첫 페이지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추상성’이 강한 수학적 사고의 특성과 ‘구체성’을 선호하는 학생의 사고의 특성 사이의 괴리입니다. 이런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수학의 추상성을 희석시키고 수학 개념과 원리의 설명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본인은 이 부분을 읽으며 교리 설교에 대하여 큰 통찰을 얻었다. 플랜팅가는 “유진 피터슨처럼 독서 시간을 설교 준비 시간으로 생각하고 시간표를 짜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²⁰⁾ 제안한다.

본인은 1997년 어느 날 tv로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았다. 집에서 기르는 용감한 진돗개가 사자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여, 현관의 진돗개에게 “사자를 보라”라고 외치며 손으로 tv를 가리켰다. 진돗개는 tv대신에 본인의 손을 쳐다봤다. 이번에는 tv로 가서 손으로 화면의 사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사자를 보라고 외쳤다. 진돗개는 주인의 동작과 소리에 놀라 본인을 한번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잠을 잤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동물은 방향성이 없고, tv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방향성과 tv 시청이 동물에게는 이적이고 신비한 일이다. 본인은 이 경험을 통하여 신자들의 내적인식원리는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선물임을 깨달았다. 비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시비를 건다. 그들의 내적인식원리는 이성과 감성인 것이다.

도르트 신경의 제1장 제5항은 “이러한 불신의 원인이나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처럼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라고 말한다. 제6항은 “시간 속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고, 다른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지, 선택의 원인이 아니다. 이것을 위의 진돗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을 경험했다.

팀 켈러는 『팀 켈러의 설교』에서²¹⁾ “기억하기 쉬운 설교를 만드는 한 가지 요소는, 통찰이다.

18)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Jr., 오현미 역 『설교자의 서재-창조적 설교를 위한 세속적 책 읽기』 (서울: 복있는 사람, 2014): 28.

19) 안수진,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21권』 (서울: 자음과 모음, 2008).

20)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Jr., 211.

21) 팀 켈러, 채경락 역, 『팀 켈러의 설교』 (서울: 두란노, 2016): 239.

기억하기 쉬운 연설이 되려면, 청중이 이미 아는 것을 그들이 아는 용어로 들려주기보다, 신선한 통찰이 묻어나는 방식으로 개념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독서량이라며, “통찰 가득한 설교는 깊은 연구, 독서와 탐구의 깊이에서 나온다.”라고 말한다.

통찰은 연관되지 않을 것 같은 두 대상을 공통점을 찾아 연결할 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교리 설교는 교리만을 말한다고 되지 않는다. 팀 켈러는 “믿을 추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지 않으면, 양분을 공급할 수도 기쁨을 줄 수도 없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설교에서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리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들보다도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교리를 전달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풍성한 독서량과 다양한 자료의 축적과 삶에 대한 깊은 관찰로 교리를 쉽고 재미있고 통찰 있게 전해야 한다.

팀 켈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에서 추상적인 교리 명제를 생생한 경험으로 표현하였다고 극찬한다.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를 들어 올려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내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추상적인 교리 명제이고, “가느다란 거미줄로 떨어지는 바위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²²⁾ 감각 경험이라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명제와 경험을 함께 사용하여 단지 합리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더 깊게 기억되는 감각 인상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팀 켈러는 설교에서 논리적인 차원과 경험적인 차원이 중요하고, 적절한 경험적인 차원은 교리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말한다.

워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는 『상상이 담긴 설교: 마음의 화랑에 말씀을 그려라!』에서 그림언어를 통해 교리를 전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잘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신학적인 딱딱한 용어들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메시지로 바꾸는 것의 필요성과 방법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도르트 신경을 더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만들려면 목회자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것은 평상시에 독서와 관찰과 경험과 사색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르트 신경을 대중적으로 만들려면 대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6. 도르트 총회의 목회적 측면

1618년 11월 13일에 시작된 도르트 총회는 소환한 항론파들이 12월 6일에 오기까지 성경을 화란어로 번역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1637년에 번역본이 발간되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 주일 오후예배에서 다루어, 1년에 전체를 다루도록 결정하였다. 노예의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문제, 목사의 교육, 논란을 일으키는 책들의 견책에 대한 결정도 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일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도르트 총회는 외국 대표들이 돌아간 뒤에 1619년 5월 13일부터 교회 질서(church order)를 다루었다. 네덜란드 교회는 1568년에 네덜란드 국경 접경 지역인 독일의 베젤(Wesel)에서 비공식적으로 열린 대회에서 교회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의 초안을 마련했다. 3년 후인 1571년에 독일의 엠덴에서 열린 총회는 이 초안에 기초하여 교회 질서(Church Order)를 채택했다. 이 교회 질서는 1586년의 헤이그 총회를 거쳐, 1619년 5월의 도르트 총회에서 일부 수정된 후에 승인되었다. 총 86조로 이루어진 도르트 교회 질서는 서론(총 1개), 교회의 직분들(총 27개), 교회의 회의들(총 24개), 교리와 성례와 의식들(총 18개), 그리고 권징(총 16개)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장로 교단의 헌법과 비교하면 교회의 직분들과 회의들(총 51개)이 헌법의 교회 정치에 해당하고, 교리와 성례와 의식들이 헌법의 교리와 예배모범에 해당하고, 권징이 헌법의 권징조례에 해당한다. 1563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교회 질서와 함께 발표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신앙고백서(1646년 12월), 성경구절 주석 첨부(1647년 4월), 소요리문답(1647년 11월), 대요리문답(1648년 4월)을 만들

22) 팀 켈러, 229.

기 전에 먼저 예배모범(1645년)과 장로회 교회 정치규범(1645년)을 만들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은 예배모범과 정치규범과 권징조례를 교회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지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예배와 정치와 권징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도르트 총회는 단순히 다섯 가지 교리의 확정에 머물지 않고, 네덜란드 교회의 여러 필요와 요구를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목회자들이 도르트 신경을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 동시에 예배모범과 정치규범과 권징조례를 가르치고 시행해야 한다. 오직 전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한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교회에서 도르트 신경을 가르치며 예배와 정치와 권징을 헌법대로 하지 않는 목회자는 도르트 신경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고 성도들의 반발과 비판을 받게 된다. 도르트 신경의 기본 정신과 원리가 매 주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정치와 권징을 통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일반 성도의 신앙생활과 직결된다. 도르트 총회는 단순히 5대교리의 도르트 신경만을 작성하지 않고, 네덜란드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도 다루었다. 도르트 총회는 교회를 위해 열렸고, 총회가 내린 결정들은 교회를 위해 존재해왔다.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교리와 교회 질서 등에서 도르트 총회의 결정문으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 도르트 총회는 절대로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교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사항들과 교리를 결정하였다.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결정하였다.

7. 나가며

도르트 총회 400주년이 되는 2018년부터 도르트 총회와 신경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다. 본인이 여러 목사들과 도르트 총회에 대하여 대화할 때, 적지 않은 목사들이 처음에는 “도르트 총회”라고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도르트문트 총회”라고 표현하곤 하였다. “도르트”란 단어를 처음 들 어본 것이다. 장로교 목사라고 할지라도 도르트 신경을 접하였거나 정독한 이들은 많지 않다. 이에 반해 칼뱅주의 5대교리는 툴립(TULIP) 교리로 많이들 알고 있다. 칼뱅주의 5대교리는 칼뱅의 신학 중 5가지 핵심 교리를 뜻하지 않고, 도르트 신경이 다룬 5가지 교리가 칼뱅주의와 맞다는 의미에서 도르트 신경의 5가지 교리를 뜻한다. 일반 목회자들은 칼뱅주의 5대교리에 대하여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현학적으로 느낀다. 이런 어려운 것을 굳이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런데 그들이 도르트 신경이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작성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교회에서 칼뱅주의 5대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 중 상당수는 도르트 신경의 논리 구조가 아니라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도르트 신경을 참고하여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도 많은 중고생들이 1966년에 홍성대 씨가 저술한 『수학 정석』을 이용한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지금도 옳은 내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왜 400년 전에 작성된 도르트 신경을 받고, 널리 전하려하는가? 성경의 전체 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수학 선생은 추상적인 수학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다. 훌륭한 성경 교사는 추상적인 칼뱅주의 5대교리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야 한다. 도르트 신경의 논리 구조를 따라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여기에 목회자의 독서력과 경험과 관찰력과 표현력이 뒷받침된다면 교리 설교와 강의는 사람과 사회를 읽어내는 지름길임을 성도들이 깨달을 것이다.